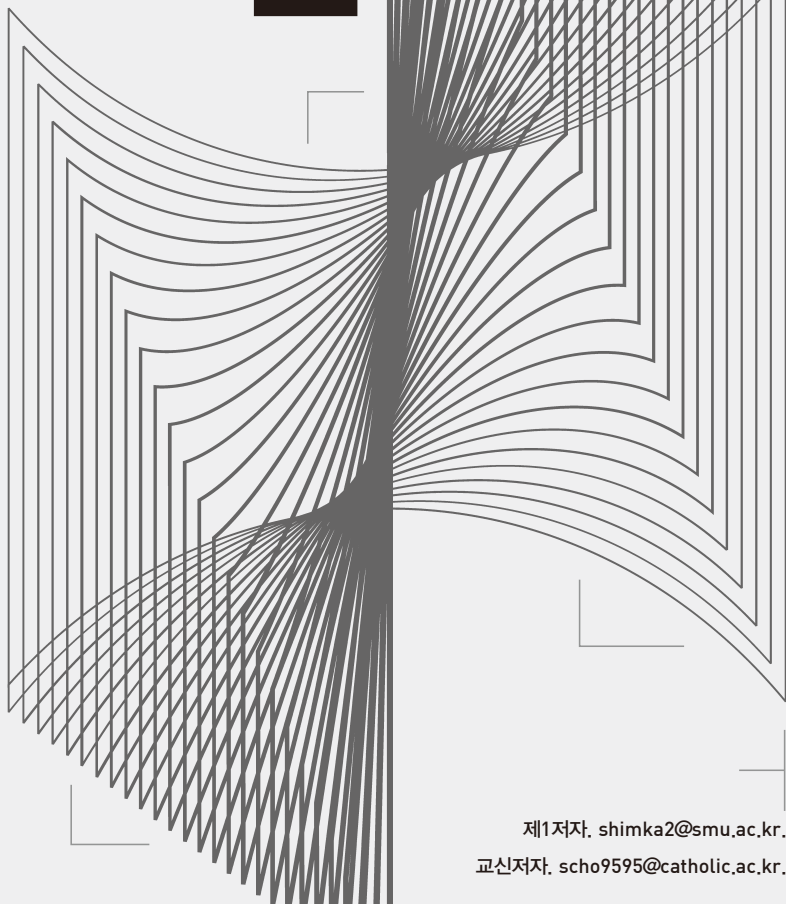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9호

(2026/여름)



제1저자. shimka2@smu.ac.kr.

교신저자. scho9595@catholic.ac.kr.

보호의 객체에서 권리의 주체로

한국적 맥락에서 본 아동 돌봄의 구조적 공백과 통합 분석

심가가(상명대학교 · 간호학과 · 부교수)

조성환(가톨릭대학교 · 사회복지대학원 · 조교수)

<https://doi.org/10.21738/JHS.2026.8.59.393>

I. 서론

아동(child)은 고정된 생물학적 범주에만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가치와 제도, 가족관계와 권력구조 속에서 그 의미가 구성되어 온 존재이다(Ariès, 1962; James & Prout, 1997). 아동기를 둘러싼 관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점은 부모-자녀 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검토한 연구(Pollock, 1983)와, 아동의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유용성에서 정서적 대체 불가능성으로 이동해 온 과정을 분석한 연구(Zelizer, 1985)에서도 확인된다. 오랫동안 아동은 성인의 미숙한 축소판이거나 부모와 국가의 보호와 통제가 필요한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아동기 특유의 의존성과 취약성은 주체성의 제약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협약)의 채택은 이러한 아동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규범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협약은 생존과 보호를 받을 권리뿐 아니라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아동을 돌봄의 수혜자를 넘어 권리와 행위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재정립하였다(UN General Assembly, 1989).

한국의 변화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역사적 맥락은 단순하지 않다. 전통적 가족 질서에서 아동은 집안의

연속성과 효 규범 안에 위치했으나, 1923년 방정환을 중심으로 전개된 어린이 운동은 아동을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으로 호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전환을 보여 준다(김대용, 2011; 이재연 외, 2007; 이지원, 2021). 이는 1924년 제네바 아동권리선언보다도 앞선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인격과 존엄에 관한 공적 담론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은 식민지와 전쟁, 산업화와 발전국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고, 아동은 다시 가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상으로 위치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1991년 협약 비준 이후 아동복지 관련 법제의 정비,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8년 아동수당 도입, 2021년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조항 삭제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도 권리 기반의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아동의 일상적 권리 경험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과 성인 중심주의, 경쟁적 교육 환경은 아동의 행위 주체성과 참여권이 실제 돌봄 관계에서 구현되는 데 지속적인 긴장을 만들어 왔다(황옥경, 2016). 이 지점에서 돌봄을 개인의 도덕적 성향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배분 문제로 이해하는 관점(Tronto, 1993)은 아동 돌봄을 가족의 과제로 환원하지 않고 제도적 조건 속에서 검토할 근거를 제공하며, 국내에서도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 아동 돌봄 정책을 재구성하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백경훈, 2022). 따라서 한국의 아동 돌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 담론의 제도적 수용 여부뿐 아니라, 그 권리가 어떠한 관계와 환경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거나 제한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 아동이 경험하는 위기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아동·청소년의 어려움은 과거의 영양결핍이나 감염병처럼

가시적인 생존 위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학업 압박과 가족 갈등, 또래 관계의 소외가 우울과 불안,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NSSI)와 같은 내재화된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건·복지·교육체계의 분절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아동이 필요한 서비스에 적절히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여기에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일상적 발달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 알고리즘,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 참여와 같은 새로운 권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조건, 장애, 이주 배경, 가족 형태 등도 이러한 위험을 동일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들이 학문과 제도 안에서 상당 부분 분절적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데 있다. 발달 및 정신건강 연구는 주로 아동 개인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생태체계적 연구는 가족·학교·지역사회와 같은 환경적 조건을 강조해 왔으며, 불평등 연구는 특정 집단의 상대적 취약성에 관심을 가져왔다. 각각의 접근은 중요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무엇이 취약해지는지, 그 취약성이 어느 수준에서 생산되고 완충되는지, 그리고 같은 위기가 누구에게 더 가혹하게 분배되는지를 하나의 분석 과정 안에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 돌봄의 핵심 결손을 개별 프로그램의 단순한 부족이라기보다는, 아동의 다차원적 위기와 그에 대응하지 못하는 체계의 공백을 함께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적 분석 틀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정신건강, 체계 간 단절, 디지털 환경, 교차적 불평등이라는 네 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분석 틀이며, 네 영역은 각각의 연구 동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그 틀이 이질적인 위기 유형에도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조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아동의 생물심리 사회적 안녕, 생태체계적 환경, 교차적 불평등을 포괄하는 통합 분석 틀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둘째, 이 분석 틀을 한국 아동이 직면한 주요 위기에 적용할 때 어떠한 구조적 돌봄 공백이 식별되는가? 이를 통해 개별적인 정책대안의 나열보다 한국 아동의 위기가 발생하고 완충되지 못하며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설명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문헌 선정

본 연구는 아동 돌봄과 관련된 국내외 이론 및 실증 문헌을 비교·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개념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비판적 문헌고찰(critical review)이다. 비판적 문헌고찰은 개별 개입의 효과를 종합하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달리, 축적된 지식의 논리와 전제, 설명의 한계를 분석하여 새로운 이론적 관점이나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Grant & Booth,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돌봄에 관한 모든 연구의 효과크기를 포괄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활용되어 온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결합하여 아동의 위기와 돌봄 공백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 틀을 구성하는 데 있다.

문헌 검색은 협약이 채택된 1989년부터 2026년까지 출판된 국내외 학술논문, 학술적 단행본, 정부 및 국제기구 공식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이론적 틀 및 아동관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고전적 문헌은 출판연도와 관계없이 포함하였다. 국제 데이터베이스로 PubMed, CINAHL, PsycINFO, Social Work Abstracts를, 국내 데이터베이스로 DBpia, RISS, KISS를 활용하였다. 검색어는 연구 질문에 따라 아동권리와 아동 돌봄(‘아동권리’, ‘아동 참여’, ‘child rights’ 등), 위기와 체계(‘아동 정신건강’, ‘비자살적 자해’, ‘integrated care’ 등), 분석 틀과 최근 돌봄환경(‘생태체계’, ‘교차성’, ‘디지털 아동권리’, ‘trauma-informed care’ 등)의 세 범주로 구성하여 조합하였다.

분석 대상 문헌은 다음 세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생물심리사회학적 모델, 생태체계이론, 교차성 이론 및 아동 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핵심 이론 문헌이다. 둘째, 한국 아동의 정신건강, 아동 학대, 돌봄 체계 및 서비스 접근을 실증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와 정부 공식 통계이다. 셋째, 통합 돌봄, 정신건강서비스 접근, 아동 참여, 트라우마 정보 기반 실천의 효과 또는 한계를 검토한 최근의 체계적 문헌 고찰·종설과, 데이터 기반 아동보호 등 주요 접근의 정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문헌이다. 특정 질환의 치료 기술 자체에만 초점을 둔 임상 연구와 논거 및 자료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학술 자료는 제외하였다. 정부와 국제기구 자료는 아동의 현황과 제도적 맥락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문헌 선택이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주요 쟁점마다 지배적 관점뿐 아니라 그 효과의 범위나 한계를 제기하는 연구를 함께 검토하였다. 예컨대 데이터 기반 아동보호에서는 예측 모형의 가능성(Vaithianathan et al., 2013)과 함께 알고리즘의 편향과 감시 확대 가능성(Eubanks, 2018; Gillingham, 2016; Keddell, 2019)을 검토하였다. 통합 돌봄 역시 필요성만을 전제하지 않고 최근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나타난 효과의 불확실성과 근거의 제한성을 함께 살펴보았다(Bird et al., 2025; Ghotane et al., 2024). 이

를 통해 이론적 문헌, 한국의 경험적 자료, 최근의 종합적 근거, 비판적 문헌이 서로 교차하도록 분석 자료를 구성하였다.

2. 이론적 분석 틀

1) 세 가지 이론의 분석적 역할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위기와 돌봄 공백을 분석하기 위해 생물심리사회적 모델, 생태체계이론, 교차성 이론을 결합한다.

첫째, Engel(1977)의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은 건강과 발달을 생물학적 요인만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은 아동기의 발달적 민감성과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학업 압박, 가족갈등, 또래소외 등의 사회적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어떻게 심리적 위기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둘째,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은 아동이 가족, 또래, 학교라는 미시체계뿐 아니라 체계 간 관계인 중간체계, 지역사회와 부모의 노동환경 등 외체계, 정책과 문화라는 거시체계 및 역사적 변화인 시간체계 안에서 발달한다고 본다. 이 관점의 핵심은 아동의 어려움을 개인 내부에만 위치시키지 않고 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완충되는 환경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 있다.

셋째, Crenshaw(1989)의 교차성 이론은 계층, 장애, 성별, 가족형태, 이주배경 등의 사회적 위치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여 고유한 불평등의 경험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모든 아동이 동일한 서비스 접근 기회와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없다. 동시에 교차성의

단순한 범주화는 그 자체로 교차성 분석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Bauer(2014)는 교차성을 경험적 연구에 적용할 때 사회적 범주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작동하는 제도와 권력의 과정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2) 세 차원의 통합: 내용, 수준, 분배

세 이론은 각각 ‘무엇이 취약해지는가’라는 내용(content), ‘어디에서 생산되고 완충되는가’라는 수준(level), ‘누구에게 더 가혹하게 분배되는가’라는 분배(distribution)의 질문에 대응한다. 다만 각 이론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설명의 공백이 남는다. 생물심리사회적 모델만으로는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제도적 위치를 충분히 특정하기 어렵고, 생태체계이론만으로는 동일한 환경 안에서 나타나는 불평등한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교차성 이론만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안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차원을 하나의 연속된 분석과정으로 구성한다. 먼저 아동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어려움이 형성되거나 완충되는 환경적 위치를 살핀 다음,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 아동에게 더 무겁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문제의 존재뿐 아니라 현재 돌봄체계가 어디에서 작동하지 못하는가를 확인한다. 다만 세 차원은 돌봄 공백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식별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렇게 식별된 공백이 아동의 권리 주체성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이 해석의 단계에서 Fricker(2007)의 인식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 개념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아동의 진술이

성인과 제도의 언어로 번역·분류되는 과정에서 독립된 지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앞의 세 이론과 나란히 놓이는 분석 축이 아니라 세 차원이 도출한 결과를 권리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이다.

3) 선행 통합 시도와 본 연구의 위치

세 이론을 함께 활용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조건과 교차적 위치를 함께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설명하려는 논의가 축적되어 왔으며(Bauer, 2014; Verhoog et al., 2024), 아동 참여와 권리에 관한 연구에서도 개인 수준의 역량과 기관의 구조적 조건을 동시에 다루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Lundy, 2007; McCafferty & Mercado Garcia, 2024). 다만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특정 결과변수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이론을 병렬적으로 도입하는 데 머물렀고, 각 관점이 어떤 종류의 질문에 답하는지를 구분한 뒤 그 질문들을 하나의 순서로 배열한 경우는 드물다. 본 연구는 세 이론을 설명요인의 집합이 아니라 내용-수준-분배라는 연속된 분석 절차로 재배치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구분되며, 이 배열이 서로 성격이 다른 위기 유형에도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검증 방식이다. 이상의 결합 논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통합 분석 틀의 구성

차원	이론적 기반	분석 질문	구성 요소
내용	생물심리사회적모델 (Engel, 1977)	무엇이 취약해지는가?	생물적·심리적·사회적 안녕
수준	생태체계이론 (Bronfenbrenner, 1979)	어디에서 생산, 완충되는가?	미시·중간·외·거시· 시간체계 및 디지털 환경
분배	교차성 이론 (Crenshaw, 1989)	누구에게 더 가혹한가?	계층·장애·가족 형태· 이주 배경 등 제도적 불평등
해석	인식적 부정의 (Fricker, 2007)	아동의 경험은 돌봄에 관한 지식으로 인정되는가?	아동의 진술·경험이 제도의 언어로 번역· 분류되는 과정

주: 내용·수준·분배는 돌봄 공백을 식별하는 분석 차원이며, 해석 단계는 식별된 공백을 아동의 권리 주체성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이다.

III. 결과 및 해석

1. 한국 아동의 다차원적 위기 구조

1) 내재화된 심리적 위기와 관계적 완충의 실패

아동 및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성장뿐 아니라 정서적·인지적 조절능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다. 발달정신병리학의 관점에서 아동의 심리적 위기는 개인의 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Cicchetti & Toth, 1995). 또한 초기 아동기의 지속적 역경과 만성적 스트레스가 이후의 건강과 발달에 장기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역시 축적된 근거를 통해 제시되어 왔으며(Bush et al., 2026; Kim & Royle, 2025; Shonkoff & Garner, 2012; Shonkoff et al.,

2021), 이때 안정적 양육 관계는 역경의 생물학적 각인을 완화하는 핵심 완충 기제로 지목된다(Garner & Yogman, 2021). 특히 학업 압박, 가족 갈등, 또래 소외와 같은 지속적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 비자살적 자해와 같은 내재화된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

NSSI는 죽음의 의도 없이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압도적인 정서적 고통을 조절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부적응적 대처로 이해되어 왔다(Nock, 2010). 국내 비임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NSSI 경험이 확인되었으며 분노, 충동성, 회피적 대처 등이 자해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제시되었고, 이후 연구는 실패와 관련 요인을 넘어 치료적 개입으로 범위를 넓혀왔다(안영신·송현주, 2017; 성요안나 외, 2019; 장선희·신효정, 2024). 국제적 메타분석에서도 청소년 NSSI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와 함께 상당한 수준의 보편적 정신건강 문제임이 확인되고 있다(Moloney et al., 2024).

한국의 최근 지표 역시 평균적 삶의 질과 고위험 정신건강 지표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2024년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각각 27.7%와 42.3%로 보고되었으며(질병관리청, 2025), 아동·청소년 자살률 역시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2025). 반면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2018년에 비해 향상되었다(보건복지부, 2024). 이는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 개선과 일부 아동의 심각한 심리적 위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통합 분석 틀의 내용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는 정서조절과 심리적 안녕의 위기이다. 그러나 이를 아동 개인의 취약성으로만 환원하기는 어렵다. 수준 차원에서는 가족과 또래, 학교가 스트레스의 발생

지인 동시에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학교·가정·정신건강서비스 사이의 연결 역시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검토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서비스 이용 여부가 개인 증상뿐 아니라 서비스 가용성, 지역환경, 학교 및 의료체계와 같은 맥락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Verhoog et al., 2024).

마지막으로 분배 차원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지역의 정신건강 자원, 가족의 경제적 자원,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 및 장애·이주배경 등은 고통이 발견되고 전문적 도움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다르게 만든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드러나는 핵심 돌봄 공백은 정신건강 프로그램 자체의 절대적 부족만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의 내재화된 고통을 일상적 관계에서 조기에 인식하고, 그 신호를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며,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완충하는 기능의 부족 즉 관계적 조기 인식과 완충의 공백이다.

2) 체계 간 단절과 생태체계적 지지망의 약화

아동의 발달적 취약성은 지지적 환경 속에서 완충될 수 있지만, 위험요인이 여러 환경에 누적되고 이를 조정할 체계가 부재할 경우 장기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Garbarino(1992)는 아동과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를 개별 가족의 기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빈곤, 지역사회 자원, 사회적 지지와 제도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에서도 아동의 삶을 둘러싼 서비스는 교육, 복지, 보건의료, 정신건강, 아동보호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 문제는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각 체계가 동일한 아동을 서로 다른 기준과 책임구조 안

에서 다룰 경우 복합적인 욕구가 체계 사이에서 분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0,242건, 학대판단 사례는 24,492건으로 보고되었고, 학대행위자의 다수는 부모였으며 학대 역시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 2025). 가장 가까운 미시체계가 위협의 발생지가 되는 경우 외부체계의 조기 인지와 개입은 더욱 중요해진다.

늘봄학교의 확대 역시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학교라는 일상적 공간 안에서 연결하려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정책의 확대가 곧 체계의 실질적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늘봄학교 분석에서도 교육과 돌봄의 역할배분, 전문성, 추진기반 등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운영 범위가 확대될수록 학교의 돌봄 기능이 커지는 만큼 관련 전문성과 연계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박준서, 2024;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국제 문헌에서도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효과는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Ghotane et al.(2024)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복합적 건강·돌봄 욕구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조정 돌봄에서 일부 긍정적인 가능성이 확인되었지만 전체적인 근거의 확실성은 제한적이었다. Bird et al.(2025) 역시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회서비스 통합모형이 특정 건강 및 복지결과에서 가능성을 보이나, 연구 간 이질성과 일관된 평가근거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체계 간 단절이 제기하는 문제의 내용 차원은 단일 욕구가 아니라 심리·사회·교육·건강 욕구의 동시 존재이며, 수준 차원에서는 특정 기관 하나보다 미시체계와 외체계를 연결하는 중간체계의 기능이 핵심이 된다. 여기에 지역별 서비스 자원, 가족의 정보와 이동 능력, 특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겹치면서 단절의 영향은 아동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영역의 핵심 공백은 개별 서비스

의 부재라기보다 기관과 기관 사이의 조정, 정보와 책임의 연속성, 그리고 하나의 아동을 중심에 두고 전문성이 연결되는 중간체계의 부족, 즉 체계 간 조정과 연속성의 공백이라 할 수 있다.

3) 디지털 환경의 권리 공백

디지털 공간은 오늘날 아동에게 부수적인 환경이 아니라 관계 형성, 학습, 놀이, 정보 접근 및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는 일상적 발달 환경이다. 따라서 Bronfenbrenner의 고전적 생태체계 개념을 현재의 아동환경에 적용할 때 디지털 환경은 물리적 미시체계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은 아동에게 정보와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만들어 낸다. 사이버 괴롭힘, 지속적인 사회적 비교, 개인정보의 장기적 축적, 상업적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노출 등은 기존의 아동보호체계가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이다. 이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5호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협약의 모든 권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21). 중요한 점은 아동의 디지털 권리가 ‘위험한 인터넷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Livingstone과 Third(2017)가 지적하듯 디지털 아동권리는 보호(protection)뿐 아니라 정보 접근과 표현, 참여를 동시에 포함한다. 따라서 보호를 이유로 아동의 디지털 접근과 표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접근 역시 권리 기반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국내에서도 아동 온라인 안전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4).

디지털 환경이 제기하는 문제는 심리적·사회적 안녕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와 참여권까지 동시에 걸쳐 있으며, 위험이 발생하고 관리되는 지점 역시 가족이나 학교에 머물지 않는다. 플랫폼 기업의 설계와 국가의 규제체계가 아동의 일상적 경험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이 문제는 미시체계의 조건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여기에 기기 보유 여부를 넘어선 활용 능력, 보호자의 중재 역량, 장애에 따른 접근성,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겹치면서 동일한 디지털 환경이 아동마다 서로 다른 권리 조건으로 경험된다. 따라서 이 영역의 핵심 공백은 아동이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을 독립된 아동권리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보호권·참여권·개인정보권을 함께 조정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기반 거버넌스의 공백이다.

4) 교차적 불평등과 표준화된 서비스의 한계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renshaw(1989)의 교차성 개념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 불평등 요소가 단순히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 서로 구성되어 독특한 배제경험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은 문화·언어적 조건과 학업 및 또래관계의 문제가 결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조혜영, 2025), 장애 영유아의 가족은 교육과 보육, 건강서비스의 미충족 욕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임은정·김수정, 2025).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과 돌봄시간 및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유혜경, 2024; 이혜정 외, 2021). 그러나 교차성을 단순히 ‘다문화

아동’, ‘장애 아동’, ‘빈곤 아동’이라는 대상집단 목록으로 번역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교차성의 핵심은 개인이 여러 속성을 가졌다는 사실보다 그러한 위치와 제도적 구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접근장벽을 만들어 내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Bauer, 2014).

이 영역에서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심리·건강·교육·사회관계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복합성이 개별 가족의 특성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설정한 기준, 서비스의 자격요건, 기관의 의사소통 방식,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은 각각의 지점에서 특정 조건의 아동을 걸러 내며, 이러한 걸러짐이 누적되면서 동일한 정책의 혜택과 부담이 아동 사이에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결국 문제는 취약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기보다 표준화된 서비스가 다양한 아동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으며, 이를 교차적 조건에 대한 서비스 응답성의 공백이라 할 수 있다.

2. 통합 분석들에 따른 구조적 돌봄 공백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위기 영역은 서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내용·수준·분배의 세 차원을 교차하여 분석할 경우 현행 아동 돌봄 체계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는 몇 가지 공통된 지점으로 수렴한다(Bronfenbrenner, 1979; Crenshaw, 1989; Engel, 1977).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별 프로그램의 부족이 아니라 아동의 어려움이 발견되고, 관계와 체계 안에서 완충되며,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돌봄 공백으로 이해한다.

앞 절에서 확인된 네 가지 공백은 각각 ① 관계적 조기 인식과 완충의 공백, ② 체계 간 조정과 연속성의 공백, ③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기반 거버넌스의 공백, ④ 교차적 조건에 대한 서비스 응답

성의 공백이다. 네 공백은 발생 영역과 관련 체계가 서로 다름에도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즉 문제의 소재는 제도가 존재하는가보다 그 제도가 개별 아동의 조건에 실제로 도달하는가에 있으며, 이러한 성격의 공백은 개별 정책의 추가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각 공백을 내용·수준·분배 차원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통합 분석 틀에 따른 네 가지 구조적 돌봄 공백

분석 영역	내용 차원	주요 체계 수준	분배 차원	구조적 돌봄 공백
심리, 정신건강	내재화된 심리적 고통	가족·또래·학교·정신건강 서비스	서비스 접근 격차	관계적 조기 인식과 완충의 공백
생태체계	복합적 교육, 복지·건강 욕구	기관 간 중간체계	지역·자원 격차	체계 간 조정과 연속성의 공백
디지털 환경	심리·사회적 안녕, 개인정보, 참여	디지털 환경·플랫폼·국가	접근·활용역량 격차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기반 거버넌스의 공백
교차적 불평등	복합적 욕구	전 체계	계층·장애·이주배경·가족 형태 등의 교차	교차적 조건에 대한 서비스 응답성의 공백

네 공백을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각각이 서로 다른 정책 영역에 속함에도 동일한 구조를 공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정신건강 영역의 공백은 상담 인력이나 프로그램의 수가 아니라 아동의 내재화된 고통이 일상적 관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체계 간 단절은 서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서비스들이 한 아동을 중심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디지털 환경의 공백은 규제의 부재라기보다 보호권·참여권·개인정보권이라는 서로 긴장하는 권리들이 하나의 원칙아래 조정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교차

적 불평등의 공백 역시 취약 집단 대상 사업의 부족이 아니라 표준화된 서비스가 개별 아동의 조건에 응답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다. 발견·연결·조정·응답은 모두 제도가 이미 갖추어진 뒤에 별도로 확보되어야 하는 기능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제도의 존재는 이 기능들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며, 바로 이 때문에 네 공백은 서비스나 예산의 증설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하면 공백의 위치는 이동하지만 그 성격은 그대로 남는다. 이는 앞서 제시한 세 차원의 배열에서도 예견되는 결과이다. 내용 차원이 아동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을 특정하고 수준 차원이 그것이 생산되거나 완충되는 위치를 지목한 뒤 분배 차원이 그 부담의 불균등을 드러낼 때,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언제나 ‘무엇이 더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 왜 이 아동에게 도달하지 않는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은 네 공백을 개별 정책과제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다룰 근거가 된다.

3. 돌봄 공백의 상호연결과 권리 주체성의 제약

앞서 확인한 네 가지 돌봄 공백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앞장에서 제시한 해석 단계를 적용하면, 관계적 조기 인식의 부족, 체계 간 연속성의 단절, 디지털 환경의 권리 공백, 교차적 조건에 대한 낮은 응답성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지만, 공통적으로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돌봄체계 안에서 충분한 지식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와 연결된다(Fricker, 2007; Lundy, 2007; McCafferty & Mercado Garcia, 2024). 이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돌봄과정에서는 아동이 다시 판단과 개입의 객체로 위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재객체화는 세 가

지 경로를 통해 진행되며, 각 경로는 앞서 제시한 네 공백을 가로질러 작동한다.

1) 아동의 경험이 ‘문제’로 번역되는 과정

첫 번째 경로는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성인과 제도의 언어를 통해 ‘문제’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내재화된 심리적 고통은 아동 자신에게는 관계적 갈등이나 압도적인 정서 경험일 수 있지만, 돌봄체계에서는 우울, 자해, 위험행동과 같은 분류로 포착된다(Nock, 2010). 이러한 분류는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아동의 경험을 증상이나 위험범주로 축소할 가능성도 갖는다(Fricker, 2007; Gillingham, 2016).

특히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에서는 이러한 긴장이 더욱 분명해진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위험점수나 고위험군이라는 분류가 아동의 실제 진술보다 먼저 실천가의 판단을 조직할 경우 아동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설정된 범주에 의해 설명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위치와 선입견으로 인해 화자의 증언에 부여되는 신뢰성이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한 Fricker(2007)의 인식적 부정의 개념과 연결된다. 예측기술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전문적 판단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비판 역시 이러한 위험을 보여준다(Eubanks, 2018; Gillingham, 2016; Keddell, 2019). 따라서 조기 발견과 권리 주체성 사이의 핵심 문제는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라기보다 데이터가 아동의 경험을 보완하는가, 아니면 대체하는가에 있다.

이 경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번역의 결과가 다시 관계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아동이 특정 범주로 기록되면 그 기록은 이후의 먼

담과 관찰에서 무엇을 주목할 것인지를 미리 규정하고, 범주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예외로 처리되기 쉽다. 그 결과 관계적 조기 인식의 공백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정보가 아동의 말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2) 아동의 목소리가 체계 사이에서 소실되는 과정

두 번째 경로는 아동이 여러 체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아동은 학교, 복지기관, 의료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아동보호체계 등 복수의 기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별 기록과 개입기준이 분절되어 있을 경우 동일한 아동의 삶은 각 기관에서 서로 다른 ‘사례’로 재구성된다(Bird et al., 2025; Ghotane et al., 2024). 기관 간에 이전되는 것은 대체로 판정과 처분의 결과이지 아동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방식이 아니다. 아동의 진술은 각 기관의 기록양식에 맞추어 요약되는 과정에서 맥락이 제거되고, 다음 기관은 요약된 결과만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체계 간 연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아동이 스스로를 설명해 온 언어는 이전되지 않으며, 아동은 매 기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목소리가 전체 돌봄과정을 관통하는 중심 정보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즉 서비스는 여러 개 존재하지만 아동의 삶을 하나의 연속된 경험으로 이해하는 주체는 부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점에서 체계 간 연계의 문제는 행정적 효율성에만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돌봄의 연속성 속에서 보존되는가라는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Lundy, 2007; McCafferty & Mercado Garcia,

3) 보편적 보호가 다시 객체화를 낳는 역설

세 번째 경로는 보편성과 표준화를 중심으로 설계된 보호체계에서 나타난다. 보편적 서비스는 권리의 형식적 평등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모든 아동을 동일한 조건에 놓인 존재로 가정할 경우 장애, 이주배경, 가족형태, 경제적 조건과 같은 차이가 실제 서비스 이용에서 만들어 내는 장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Bauer, 2014; Crenshaw, 1989).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사한 역설이 발생한다.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접근과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경우 보호는 강화될 수 있지만 참여와 자기결정의 공간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Livingstone & Third, 2017). 즉 아동에게 ‘좋은 것’을 성인이 대신 결정하는 보호주의는 의도와 관계없이 권리의 주체라는 지위를 다시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 가지 경로는 각기 다른 국면에서 작동하지만 동일한 구조를 공유한다. 아동에 관한 판단이 아동의 진술보다 앞서 이루어지고, 그 판단이 이후의 관계와 절차를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프로그램의 추가나 서비스의 확대는 공백의 형태만 바꿀 뿐 그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네 가지 돌봄 공백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는 보호의 양이 충분한가에만 있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아동의 경험이 돌봄에 관한 지식으로 인정되고 있는가, 아동의 목소리가 체계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아동 사이의 차이가 권리 실현의 조건으로 고려되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호의 객체에서 권리의 주체로’라는 전환은 보호를 참여로 대체하는 것이 아

나라, 보호의 과정 자체를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포함되는 관계적 과정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James & Prout, 1997; Lundy, 2007).

IV. 논의 및 결론

■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를 개별 문제의 목록으로 다루기보다, 생물심리사회적 모델, 생태체계이론, 교차성 이론을 각각 내용·수준·분배의 차원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 틀 안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 아동의 돌봄 문제는 관계적 조기 인식과 완충의 공백, 체계 간 조정과 연속성의 공백,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거버넌스의 공백, 그리고 교차적 조건에 대한 서비스 응답성의 공백이라는 네 가지 구조적 공백으로 수렴하였다. 이 결과는 아동의 위기를 개인적 취약성과 환경적 위험 중 어느 하나로 환원하지 않고, 동일한 심리적 어려움이라도 가족과 학교의 관계,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장애·경제적 조건·이주배경에 따라 발견과 개입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하나의 분석과정 안에서 설명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미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본다’는 규범적 명제를 실제 돌봄체계의 작동방식과 연결했다는 점이다. 아동의 권리는 법적 지위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아동이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 목소리가 기관 간 이동과정에서 유지되는지, 디지털 환경에서도 보호와 참여가 함께 보장되는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설계된 서비스가 다양한 사회적 위치의 아동에게 실제로 접근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문제는 데이터 기반 조기 개입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건강검진, 학교 출결, 의료 이용, 사회보장 정보를 연계하면 위기

를 일찍 발견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앞서 확인했듯 위험분류가 아동의 진술에 앞설 경우 조기 발견은 오히려 아동을 설명의 대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데이터 기반 개입이 권리 기반 돌봄과 양립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을 시사한다. 첫째, 분석의 초점을 ‘위험한 아동’을 분류하는 데 두기보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서비스 공백을 발견하는 데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고 오류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18년부터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장기결석 등의 사회보장 정보를 연계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측모형이 추출한 명단을 토대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는 구조를 취한다(김진숙 외, 2023).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 분류의 근거가 당사자에게 설명되고 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함께 마련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물어야 할 문제이다. 분류가 조사와 방문의 출발점이 되는 이상, 고지와 이의제기의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의 요건일 뿐 아니라 아동과 보호자가 자신에 관한 서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조건이기도 하다. 셋째, 조기 감지는 실제 사람과 서비스의 관계적 개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데이터가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필요한 지점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은 실행 인력의 여건과 분리되지 않는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무원의 업무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담당자들이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확신 없이 과중한 부담을 감당해 온 상황이 보고된 바 있다(김진숙 외, 2023). 감지된 위험이 관계적 개입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행정적 확인 절차에 머문다면, 데이터의 정교화는 공백의 위치를 옮길 뿐 그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 참여, 다학제적 협력, 트라우마 정보 기반 실천 역시 별개의 정책과제로 나열하기보다 권리 기반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실천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동 참여는 서비스 설계와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경험을 지식으로 인정하는 원리이며, 다학제적 협력은 기관 간 이동과정에서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트라우마 정보 기반 접근은 아동의 행동을 개인의 문제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행동이 형성된 경험과 환경을 함께 해석하도록 요구한다(SAMHSA, 2014). 다만 이러한 접근의 효과는 제도나 프로그램의 도입 자체보다 실제 실행과 결과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현장의 트라우마 정보 기반 실천을 검토한 최근의 종합적 고찰에서도 실행의 편차가 크고 결과 지표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Goldstein et al., 2024).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비판적 문헌고찰의 특성상 관련 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으로 전수 수집하고 개별 연구의 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문헌 선정과 해석에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검색 범위와 포함·배제 기준을 명시하고 지지 문헌뿐 아니라 제한적 또는 비판적 연구를 함께 검토하였다. 둘째, 본 연구가 제안한 내용-수준-분배의 통합 분석 틀은 개념적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세 차원의 관계는 향후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건강, 체계 간 돌봄, 디지털 환경, 교차적 불평등의 네 영역은 통합 틀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기 위해 선택된 사례이며 한국 아동이 경험하는 모든 위기를 포괄하지 않는다.

결국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보호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아동의 취약성을 개인의 결핍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관계와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완충되는지, 그리고 그 부담이 누구에게 더 크게 돌아가는지를 함께 묻는 것이 권리 기반 돌봄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통합 분석 틀은 이러한 질문을 구조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며, 향후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설명력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국가데이터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2025.
- 김대용, 「방정환의 소년운동 연구: 천도교 신파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3/2(2011), 27~52쪽.
- 김진숙·한은희·김지선·우예신·정선옥, 「e아동행복지원사업 참여 공무원의 업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5/2(2023), 65~99쪽.
- 박준서,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적용한 늘봄학교 정책 분석」, 『교육비평』, 55(2024), 267~310쪽.
- 백경훈,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정책: 덴마크 소셜 페다고지」, 『한국사회정책』, 29/3(2022), 243~274쪽.
-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2024.
- _____,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 2025.
- 성요안나·배유빈·김소정,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국내연구 개관: 2000-2018년 연구들을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9/2(2019), 251~280쪽.
- 안영신·송현주,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3/4(2017), 257~281쪽.
- 질병관리청, 『2025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청, 2025.
- 유혜경, 「조손가정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아동·청소년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52(2024), 47~84쪽.
- 이재연·안동현·황옥경, 『아동과 권리』, 창지사, 2007.
- 이지원, 「일제시기 어린이날 기념 문화를 통해 본 어린이 인권 인식-192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60(2021), 263~296쪽.

- 이혜정·장수정·김병인, 「한부모가족 빈곤위험의 젠더격차와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 48/2(2021), 103~129쪽.
- 임은정·김수정, 「장애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서 미충족 필요에 관한 양육자의 인식」, 『아동과 권리』, 29/1(2025), 47~70쪽.
- 장선희·신효정,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치료 프로그램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1(2024), 281~317쪽.
- 조혜영, 「다문화 아동이 지각한 인권 존중이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관계 지지와 정서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9/9(2025), 2360~2372쪽.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연구보고 2024-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4.
- 한국교육개발원, 『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과제』(KEDI Brief 제7호), 한국교육개발원, 2025.
- 황옥경,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아동과 권리』, 20/4(2016), 609~631쪽.
- Ariès, P.,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Vintage Books, 1962.
- Bauer, G. R., Incorporating intersectionality theory into population health research methodology: Challenges and the potential to advance health equity, *Social Science & Medicine*, 110(2014), pp.10~17.
- Bird, C., Harper, L., Muslim, S., Yates, D., & Litchfield, I., Exploring the design and impact of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living in underserved populations: A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 25/1(2025), Article 1359.
-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Bush, N. R., Sullivan, A. D. W., & Noroña-Zhou, A., Early life stress effects on children's biology, behavior, and health: Evidence, mediators, moderators, and solu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7/1(2026), pp.451~483.
- Cicchetti, D., & Toth, S. L.,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5(1995), pp.541~565.
- Crenshaw, K.,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1(1989), pp.139~167.
- Engel, G. L., The need for a new medical model: A challenge for biomedicine, *Science*, 196/4286(1977), pp.129~136.
- Eubanks, V., *Automating inequality: How high-tech tools profile, police, and punish the poor*, St. Martin's Press, 2018.
- Fricker, M., *Epistemic injustice: Power and the ethics of know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Garbarino, J., *Children and families in the social environment*(2nd ed.), Aldine de Gruyter, 1992.
- Garner, A., & Yogman, M., Preventing childhood toxic stress: Partnering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to promote relational health, *Pediatrics*, 148/2(2021), p.e2021052582.
- Ghotane, S., Hirve, R., Forman, J., Tan, D., Achercouk, Z., & Wolfe, I., Integrated ca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special health and care needs: A systematic review,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109/11(2024), pp.924~931.
- Gillingham, P., Predictive risk modelling to prevent child maltreatment and other adverse outcomes for service users: Inside the 'black box' of machine learning,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6/4(2016), pp.1044~1058.
- Goldstein, E., Chokshi, B., Melendez-Torres, G., Rios, A., Jelley, M., & Lewis-O'Connor, A., Effectiveness of trauma-informed care implementation in health care settings: Systematic review of reviews and realist synthesis, *Permanente Journal*, 28/1(2024), pp.135~150.
- Grant, M. J., & Booth, A., A typology of reviews: An analysis of 14 review types and associated methodologies, *Health Information & Libraries Journal*, 26/2(2009), pp.91~108.

- James, A., & Prout, A. (Eds.), *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childhood: Contemporary issues in the sociological study of childhood*(2nd ed.), Routledge, 1997.
- Keddell, E., Algorithmic justice in child protection: Statistical fairness, social justice and the implications for practice, *Social Sciences*, 8/10(2019), p.281.
- Kim, B., & Royle, M., Annual Research Review: Mapping the multifaceted approaches and impac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an umbrella review of meta-analys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6/4(2025), pp.399~416.
- Livingstone, S., & Third, A., Children and young people's rights in the digital age: An emerging agenda, *New Media & Society*, 19/5(2017), pp.657~670.
- Lundy, L., 'Voice' is not enough: Conceptualising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3/6(2007), pp.927~942.
- McCafferty, P., & Mercado Garcia, E., Children's participation in child welfare: A systematic review of systematic review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54/3(2024), pp.1092~1108.
- Moloney, F., Amini, J., Sinyor, M., Schaffer, A., Lanctôt, K. L., & Mitchell, R. H. B., Sex differences in the global prevalence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adolescents: A meta-analysis, *JAMA Network Open*, 7/6(2024), p.e2415436.
- Nock, M. K., Self-injur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2010), pp.339~363.
- Pollock, L. A., *Forgotten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 from 1500 to 19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Shonkoff, J. P., & Garner, A. S., The lifelo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adversity and toxic stress, *Pediatrics*, 129/1(2012), pp.e232~e246.
- Shonkoff, J. P., Slopen, N., & Williams, D. R., Early childhood adversity, toxic stress, and the impacts of racism on the foundations of healt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42/1(2021), pp.115~134.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SAMHSA]., *SAMHSA's concept of trauma and guidance for a trauma-informed approach*(HHS Publication No. SMA 14-4884), SAMHSA, 2014.
- Tronto, J. C.,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Routledge, 1993.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CRC/C/GC/25), United Nations, 2021.
- UN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1989.
- Vaithianathan, R., Putnam-Hornstein, E., Jiang, N., Magruder, P., & Dare, T., Developing predictive models to support child maltreatment hotline screening decision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11(2013), pp.1960~1967.
- Verhoog, S., Eijgermans, D. G. M., Fang, Y., Bramer, W. M., Raat, H., & Jansen, W., Contextual determinants associated with children's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care utilization: a systematic review,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3/7(2024), pp.2051~2065.
- Zelizer, V. A., *Pricing the priceless child: The changing social value of children*, Basic Books, 1985.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이 경험하는 다차원적 위기를 개인의 취약성이나 개별 서비스의 부족으로 환원하지 않고, 생물심리사회적 안녕과 생태체계적 환경, 교차적 불평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분석 틀을 구성하여 현행 아동 돌봄 체계의 구조적 공백과 그 권리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989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내외 학술문헌과 정부 및 국제기구 자료를 대상으로 비판적 문헌고찰을 수행하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지지 문헌뿐 아니라 효과의 범위와 한계를 제기하는 비판적 문헌을 함께 검토하였다.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을 ‘내용’, 생태체계이론을 ‘수준’, 교차성 이론을 ‘분배’차원으로 재구성하고, ‘무엇이 취약해지는가’, ‘어디에서 생산·완충되는가’, ‘누구에게 더 가혹한가’라는 세 질문으로 이를 결합하였다.

이 틀을 정신건강, 체계 간 돌봄, 디지털 환경, 교차적 불평등에 적용한 결과, 한국 아동의 돌봄 문제는 관계적 조기 인식과 완충, 체계 간 조정과 연속성, 디지털 환경의 권리 기반 거버넌스, 교차적 조건에 대한 서비스 응답성이라는 네 가지 구조적 돌봄 공백으로 수렴하였다. 이들 공백은 아동의 경험이 제도의 언어를 통해 ‘문제’로 번역되는 과정, 아동의 목소리가 체계 사이에서 소실되는 과정, 보편적 보호와 표준화가 아동을 다시 보호의 객체로 위치시키는 역설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조기 개입에서 위험 분류가 아동의 경험과 진술을 선행할 경우 인식적 부정의를 초래할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보호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통합 분석 틀은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향후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주제어: 아동 권리, 아동 돌봄, 구조적 돌봄 공백, 생물심리사회적 모델, 생태체계 이론, 교차성, 인식적 부정의, 한국 아동



From Objects of Protection to Subjects of Rights: An Integrated Analysis of Structural Gaps in the Care of Children in the Korean Context

Shim, Ka Ka

(Sangmyung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 Associate Professor)

Cho, Sung Hwa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 Assistant Professor)

■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framework for analyzing the multidimensional risks that children in South Korea face (including children in general, not only those in out-of-home care) without reducing those risks to individual vulnerability or to deficiencies in particular services. A critical review was conducted of academic literatu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Korean legislative and policy documents on child welfare, education, and health published between 1989 and 2025. Within this framework, the biopsychosocial model is reconstructed as the dimension of content, ecological systems theory as the dimension of level, and intersectionality as the dimension of distribution; these are integrated through questions concerning what becomes vulnerable,

where vulnerability is produced or buffered, and for whom a given risk becomes more severe. Sources that qualify the dominant deficit-focused and protection-centered perspectives were also examined in order to limit selective interpretation. Applied to mental health, cross-system care, the digital environment, and intersectional inequality, the framework identifies four structural gaps: limited early relational recognition of internalized distress, weak coordination across systems, insufficient rights-based governance of the digital environment, and low responsiveness to intersectional conditions. These gaps are connected by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experiences into institutional definitions of "problems," the loss of children's voices across fragmented systems, and the paradox whereby universalized safeguarding repositions children as objects of protection. Where risk classification precedes children's own accounts, data-driven early intervention may produce epistemic injustice. Recognizing children as subjects of rights does not diminish their need for protection; rather, it requires a change in how protection is practiced. The framework offers a theoretical basis for such analysis, although empirical validation remains necessary.

Keywords: children's rights, child care, structural care gaps, biopsychosocial model, ecological systems theory, intersectionality, epistemic injustice, children in South Korea

- ◎ 투고 접수 2026. 03. 23.
- ◎ 심사 완료 2026. 04. 17.
- ◎ 게재 결정 2026. 08. 10.